

美도청에 악의 없다는 대통령실, '위조설' 내세워 봉합

“미 국방장관 먼저 통화 제안, 유출문건 상당수 조작 평가 일치”
사과 요구 등 고려 안하고 일단락... “尹 국민 방미에 영향 없어”
민주 “진실 규명해 공식 사과·재발 방지 약속 받아내야” 압박

대통령실은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에 대해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미국방장관이 먼저 우리 측에 통화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왔고,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했다는 데 평가가 일치했다”며 “논란이 마무리 돼 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주장대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번 논란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방문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11일 (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뉴욕타임스가 미 정보기관의 동맹국과 우방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도·감청 정황이 담긴 유출 문건을 처음 보도했을 때만 해도 외교적으로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신뢰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스라엘 등 당사국이 일제히 문건 내용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미국 정부도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우선 방점을 찍으면서 위기를 봉합하려 시도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역대 최단기간 아그레멘(사전 동의)을 받은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방미 일정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

미나 한미정상회담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익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한국 대통령실 등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땐 모으더라도 친구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게 성숙한 동맹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과 신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 규명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알이 파악하고 사실이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고, 대통령실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월맹의 의한 도청문건의 유출사건을 보면서 미국 정보기관의 청와대 도청 문제가 최초로 불거졌던 1976년의 '코리아게이트'가 곧바로 떠오른다”며 “최초의 사건이어서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지금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한국의 외무장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조치해서 공개해명 요구와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중의 기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사실은 전혀 달랐다”면서 “58년 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을 답습하더니, 47년 전 박정희 정권의 대응을 데칼코마니처럼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언 단호히 대처해야”... 지도부에 쓴소리 쏟아낸 국힘 중진들

“집권 여당 품격 맞는 언행 해야”
“목사 손아귀에 휘둘리지 말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2일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회부의장인 5선의 정우택 의원은 3·8 전당대회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을 거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한테 녹록지 않다”며 “지자체 선거이긴 하지만 최근 재·보궐선거 (패배)가 주는 시그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운을 폈다.

이어 “현장에서 있어 보면 우리 당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언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은 힘들어한다”며 “이런 것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5·18 정신 헌법 수록 문제,

제주 4·3 기념일, 전광훈 목사 등과 관련해 각종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자꾸 무슨 지도도를 갖고 그러는데 지도도는 ‘업 앤 다운’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자신감이다. 해야 할 일을 적시에, 적소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신상필벌은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만일 음침마속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절대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면서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대의명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20만~30만명을 우리 당에 심어놨고 그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온갖 선전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수습해야 한다. 목사 손아귀

에서 움직여지는 당이 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중진들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공천률 정비, 인재 영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정진석 의원은 “늘 보면 총선이 압박해서 사람들이 고르니 하다가 ‘그 밥에 그 나물’ 소리 듣고 공천하는데, 그러지 말고 1년 전부터 밀도 있게 사람을 발굴해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은 “사람을 미리 찾아서 준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공천 원칙을 빨리 확정하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대, 21대 총선에서 우리 선거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공천 과정에서 우리들의 잡음 때문에 선거를 훨씬 더 진 케이스였다. 민주당은 이때 당내 공천 논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당적 변경시 안전조정위 배제’ 법안 발의

국힘 유상범 의원... ‘폼수 탈당’ 방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

혔다.

개정안은 조정위 심사 대상 안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김수환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행태 의원의 ‘폼수 탈당’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약용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야 한다”며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을 통해 정쟁 안전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野3당 이태원 유가족 간담회... “내주 특별법 발의”

야당은 1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대한 많은 의원을 공동발의에 참여시켜 다음 주 (야 3당) 원내대표 간담회 이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야 합의가 없어도 야 3당이 협력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법 국회 청원도 국민 5만 명의 동

의를 받았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빠르게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야 3당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며 “국민의힘도 쓸데없이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좋은 법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야 3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추모공원 조성·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